

3 **시**
비밀 세계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관용을 보이는 이슬람교인.
무자극 학살을 통파시키는
적대주의, 학살의 문명사.
과학의 심리학이 요구되는 통상주의.
죽음의 문명을 함께 하는 과학주의...
어떤 것일까?

5 **시**
현수아이가 대한 총동으로 당선 된 이후 대한과
중국의 관계는? '해의 꿈'이 이루어질까?

6 **시**
노동시간 단축, 해외파괴 반대
외국에 기계를 받은 우리의
노동자 이자비들. 무거운 연장 대신
붉은 띠를 손에 두르고
가리코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노동자가 이전에 한 인간이고
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8 **시**
윤인배를 푸른 애벌레들이 꿈
나 자신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꿈이다.

10 **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이를 잊고 있어 학살단체협의회에서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학술제를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현대의 의미에서의 한국전쟁,
그 이야기를 10년에 걸쳤다.

11 **시**
백성리 미군군 폭격전 주민피해 대책위원회
전남구 위원장이 연설, 추수경쟁이 발표되었다

화석화된 중장기발전안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 수립해야

제2전학기학원의 중장기발전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9일(월)과
30일(화) 양일간 양배움터에서 열린 공청회와
한 발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제2전학기학원의 중장기발전안은 1월에 발표
된 열지 컨설팅과 3월 제2전학기학원의 발전
계획을 거쳐왔고 불구하고 더욱 퇴보하는 수
준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지적하는 주된 내용
이다. 구체성을 띠지 않고 방황한 줄은 높은 이
번 중장기 발전안은 추진할 수 있는 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인배를 총학생
회장 이음(인문·철학 4)군은 "학내구성원들
의 의견을 담아 대학평의회를 통해 건설적
제2전학기학원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마련한
중장기발전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중장기발전안" "전체 발전방안이나 구체적인
전진, 핵심목표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또한 "최종안에서는 발전
의 단계를 중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형편없는 발전안"이라고 표현했다.
중장기발전안 발표이후 대학당국은 "최종안
에 대해서는 공청회로 이야기했다. 공청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이 자리는 결정 짓는 자리가 아
니라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장기
발전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로 마무루 대학당국은 시급히 해
결해야 할 발전안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본관신숙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시·환경분과위원회 강
구영(환경학과)교수는 "당장 본관을 신숙하게
되면 우리학교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고 말해 현상행에서 본관신숙자체가 무리임
을 함축했다. 또 윤인배를 부총학생회장 정
구영(통학·중국어 4)군은 "내내말로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에신재는 신학살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공계열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정문
영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전인민복지위원
을 막기 위한 중앙에서의 재정확보방안이 있는
가?"를 묻자 발전자는 뚜렷한 대답없이 자립성
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설명해 발전자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배움터에서 각각 교수 20여명, 직원 약2명
그리고 일부 학생들만이 참여한 비교적 조용하
"개(?) 열린 공청회는 초반에 홍보를 통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이끌어내지 못한 것 외에도
의 순서나 시간 조율 등이 비효율적으로 진
행해 많은 오해를 낳았다.
제2전학기학원의 중장기발전안이 부실한 내
용으로 채워짐에 따라 이 역시 대학당국의 개
혁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본관 신숙 무기한 연거
와 윤배를 중장기 발전안 수립을 위한 7000 여
대인" 서명운동과 윤인배를 총학생회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학당국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부장 mimo329@hanmail.net



권리찾는 노동자

용인, '푸른 애벌레의 꿈' 대동제 폐막

윤인배를 대동제가 31일(수)부터 2일(금)
까지 3일간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기치로
매출된 곳곳에서 열렸다. '컬타'를 벗어버리
고 지향과 도전정신으로 꿈의 내면을 펼치자
라는 부제로 반이, 물임에 대한 흐름을 대동제
안에서 이야기 했다.
첫째날, 통일자전거대회를 대외의 개관제를
시작으로 세민들의 준비로 노여와, 체코어,
인도어 등 6개과 12개팀이 참여하여 민족
악과 춤을 공연한 작은 세민들이 진행했다.
둘째날은 남녀학생들과 통일열의가 담긴 남
북순이의 통일전통놀이, 청년연극음악의 등이

열렸고, 그리고 셋째날 폐막제로 이어졌다. 폐
막제는 도현상가 주민들의 노래자랑과 왕산
댄스와 선반대, 그리고 광복 웃다리 판
과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상선행사로는 왕산통일열의 토크쇼, 통일
인간 육놀이, 추수이군 병차 사진전, 풍물 음식
집 등이 다양하게 열렸다.
이번 대동제는 비교적 다양한 행사가 열려
예전보다 분위기가 활발해졌으나 과자의의 계
획적 준비가 미비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은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단행

주5일근무제 도입, 해외파괴 반대 등 목소리 높여

민주노총은 지난 31일(수) 97개 사업장 7만 9
천여명에 이르는 규모의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
주5일근무제 도입 △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
동차 해의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 비정
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중 "주5일근무제"는 지난 해년 2월 노
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지점이기도 해 대
구구가 주목된다.
한편, 총파업이 4일째를 맞은 3일(토) 오후 2

시30분 서울 중도경찰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와 비정규직·영세
사업장·여성노동자 대의'를 외고 주5일근무제
도입,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완추진으로의
일금회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정
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위
탁계약직인 대학교사 노조, 방송사 운전직 등
종종합, 보험설계사, 여성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명과 축협노동조합 등 현재 파업
을 진행중인 2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서울, 방중 도서관 공간 재배치 시설보수 등 공사

서울배움터 도서관이 여름방학기간동안 공간
재배치와 시설보수공사를 한다. 이번 도서관
공사는 그 동안 도서관이 20년 이상 해 누구
되는 등 나후한 집후를 계속 보여 제기에 왔
다. 이와 함께 작년 도서관 학생위원회가 제
기한 공간재배치도 함께 진행해 방중 도서관 운
영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방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객기사 3번
공간재배치는 1층에 참고자료와 정기간행물
과 논문, 23층에 대출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2층의 참고자료와 1층의 대출도서관의 위치

가 바뀌게 된다. 또한 12층으로 분리해 있는
열람과 1층으로 통합해 위치하므로 효율적인
인원배치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간재배치와 함께 상담실, 피아노 교재공
사, 화상실 개보수 등이 진행돼 4층 교수회
관 방한 열람실을 각각 50여명 50여명의 접
타와 자료가 있는 멀티미디어실을 개관한다.
이와 관련 열람업무 자동화에는 "그동안 불
편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게 될 것"이며 정보
도서관으로 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
했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전만구 위원장 비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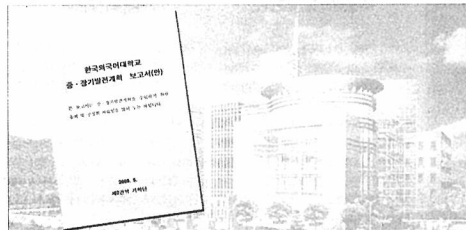
용인학생 5명 연행

지난 29일(금) 매달리 사격장에 폭력이 재개되
어 이에 원의하던 '백성리 미군군 폭격전 주
민피해 대책위원회' 전만구 위원장이 연행되
었다. 또 전 위원장의 연행에 반대로 화성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던 우리학교 용인배
울터 5명의 학생을 비롯, 연인지역 학생들과
사회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집단 연행되는 일
이 발생했다. 이날 연행된 학생은 최고은(서
우합·노어 4, 부총학생회장), 황종환(인문·인
어 3, 후학)군 등 5명이며 황종환 군은 불구구,
나머지 네명은 혼란 조치를 받고 3일(토) 오후
5시경 풀려났다.
한편, 연행된 학생들은 경찰서에서 진술 거부
투쟁과 "우리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자 작성에 반대 투쟁을 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최효봉 기자 hobbang103@hanmail.net

등록금 낮추기 위한

첫 협상

등록금과 관련 첫 협상시기가 마련됐다.
지난 31일(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총장
과의 면담에서 논의한 결과, 오는 3일(월) 협
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
회는 총장실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장거를 찾
았다. 또 이날 면담에서는 대학당국이 이 동안
중단했던 교비와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
했다.
3일(월) 협상에서는 등록금을 낮추지 않는
대신 장학금이나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대학
당국과 장학학중이나 복지혜택은 기본이고
등록금을 1%정도 낮추어야 한다는 총학생회측
의 주장이 팽팽히 될 듯하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이음(인문·철학 4)
군은 "등록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
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부장 mimo329@hanmail.net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각자의 악기는 달라도 하나의 협주곡
을 만들어내듯 노동자, 빈민, 학생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6월 10일 민중대와 공간으로 달려오
세요.

3대 공동투쟁 과제

- 경제주권, 민중생존권 수호
- 우한미군 철수, 평화교육 실현
-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 보장

민족자주언론
오디세학보

우리가 만드는 축제

▲"중국어와 최고의 미인을 뽑아주세요" 5월의 햇살을 받으며 빛이 나는 중국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위에 오른 여학생들. 속속스런 웃음과 사의의 눈빛으로 서로 손을 잡고 노래하
는 어설픈 커튼, 선그라스 쓰고 흥얼거려 '물리스토리'를 완을 무시하며 당당하게
블러드인 춤사위를 남학생들, 서울배움터 중국어에서 준비한 과태리의 모습.
"신랑 신부 맞선" 옛날 불에 연지근지 쪼은 골디스온 새색시, 그녀를 반박웃음을 지
으며 거뜬히 없는 새신랑. 통일을 기원하며 남성이, 복순이 정통문화의식을 지루는 이 두녀는
윤인배를 새내기 캠퍼스캐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뒤로 하고 양배움터의 대동제에 막
을 내렸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큰 재를 올린다는 뜻의 지난 대동제, 이 말이 생긴 것은 지
난 해대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그 당시의 슬박하는 분위기를 도피해오라는 의에서 방
생이 모여 즐기는 난민을 찾는 축제였다. 그러나 광우·18항쟁을 겪으며 항의적이고 남
민을 추구하는 축제를 거부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억눌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쳐하고 저
항하는 대동제를 스스로 만들어 즐기게 된다.
"명민한 음악... 정경현" 우리의 소리와 함께 춤출, 마당구, 줄리타로 힘껏 춤을 물고
수많은 학생들이 교문 앞에 모여 억압당하는 현실에 맞섰다.
▲그러면 현재 대동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번 대동제는 어떤 가수가 온대?" "대동제 감지도 없는데 대동제로 놀라잖개?" "술마시
러 주점가자" 80년대 학번과 90년대생 넘어서는 학번을 가진 대학생들 사이에는 생각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대동제에게에 의미와 뜻이 있고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 생가해이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동제는 과, 화, 화, 화 등등 각자가 준비해 서로에게 보여주려 하나의 모든 구성원
들이 참여해 완을 즐기는 우리의 축제이다. 다당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나 다른 사회에
사기 아니라 대학사회에서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서울배움터의 중국어과와 무대처럼 용인배움터의 통일을 향하여 진행한 전통
예술제...

정효정 기자 hyodeng@hanmail.net

교수임용 문제

교수사회 고질적 풍토 쇠신해야

파벌주의 조장하는 예... 진실보한 개혁 필요

세로 마천루 교원임용제에 골간대 물 얻어 교수임용문제가 마무리될 법도 했으나 대학당국과 교수사회에서 끊임 없이 잡음이 일어난 것이 우리학교 저간의 사정이다. 교수초빙 공고가 나간 시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교수임용과 관련해서는 전위여부를 떠나 특정 개개의 대안이냐는 인식도 거스를 수 없게 됐다.

학사상위위원회와 심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교수임용제에도 제단이 사회 인사위원회와 외부심사제를 도입한 것이 교수임용제에 발단이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교수임용 문제를 근절하고자 외부심사제도를 도입했고 우리학교 또한 외부심사제도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수임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함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외부심사 반대하는 입장으로만 비쳐졌던 법학과, 영어학부, 사범아과 교수들은 해결강이 "건지 외부심사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심사아과가 합당한 되면 임용과정에서 몇몇을 반영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심사제에 맡기기 위해서 사정에

충만하고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한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에서 재판을 시형제에 손을 댄 것은 공평시비를 불러일으킨 만하다고 밝혔다. 외부심사제에 앞서 후보자 출신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의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사위원회와 학사상위위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후 대학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교원신규임용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최종안은 비교적 수렴할 만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나 3개 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양극(?)이 남아 있어 결국 법학과와 영어학부에서는 2학기 교수추진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수임용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닌 학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A교수는 "교수임용절차가 정답이다. 잘못했기 때문이냐는 것 자체가 옳고 그 후로는 지킬지나 안 했나"로 해석한다"고 밝히며 "또한 B교수는 "외부심사제 어느 학교에 맡기느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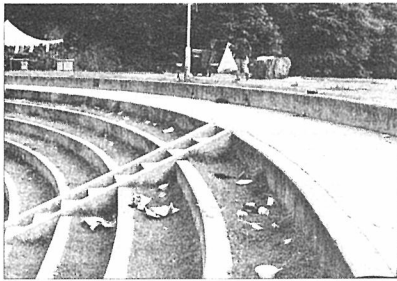
따라 어느 대학출신 후보가 임용되는가 결정된다. 외부심사는 비동등 교수들이 세를 늘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C교수는 "전공심사사를 하도하면 전공분야나 논문제출만 보더라도 어떤 후보의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내부심사사라면 더욱 그렇고 외부심사도 내정된 후보자의 임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교수임용은 심사자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수임용과 관련 급급이 큰 상황에서도 대학당국은 해결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기에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교수 대부분은 공청회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교수임용문제는 학내 파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격렬한 예이다. 이로 인한 파벌은 결국, 2학기 교수추진이 되지 않은 일부 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대학당국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교수사회의 진실보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대학부장 mino329@hanmail.net



누가 버렸는데..
대통령 기간 종인 지난 2월(금) 이원 용인백운동 원상 주변 모습이다. 현재 내 역고 여는 화석의 모습과 이원이 되면 대안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수위자세와 모습은 대통령의 전 동헌(?) 두가지의 얼굴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배움터 도서관 공사

이용자 고려하는 공사돼야

이번 여름방학 동안 시행되는 도서관 공사는 공간 재배치와 멀티미디어실 확충을 통해 그동안 지적됐던 도서관의 내부상을 다소나마 해결할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열람실 이용자들에 대한 대학과 공간재배치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에 있어 대학에 요구한다.

우선 방학기간 동안 열람실 이용 문제이다.

학교측에서는 열람실 이용을 위해 대학원 건물 6105, 6311, 6411 세 강의실을 열람실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 학기가 끝나는 대로 대학원의 지하 강 의실도 열람실로 할 방침이다. 이 강의실의 좌석수는 전부 500여개에 불과한 평균 이용자 900여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름방학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인식(사) (서양, 독일이 3)은 "계절학기 동안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증가한다. 용인배움터 학생들도 찾아오는 여름방학 동안 열람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겪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사가 인한 열람실 확보 문제 외에 도서관배치로 인한 가운데 계단(현제 1층에서 3층까지 내부로 이어지는 계단)의 사용증가로 학생들의 통행에 불

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용자들이 주로 1층에서 자료를 구했던 것과는 달리 공간 재배치가 되면 모든 내부상을 다스려야 해 접근이 어려워져 이용자들의 이용과 고려해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계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 열람실 이용 차량승객은 "우려스러운 점은 도서관 공사 후 학생들의 이용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컴퓨터 미디 어 시설은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장려할 계획이지만 CD 타이틀이 12 종 밖에 있는 것을 비롯해 디지털 관련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단순한 전신실로 운영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관련해 도서관 학사상위위원회 위원장 장대근(사학)은 불어 4)은 "예산문제에 의해 공사가 늦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측은 소음방지 장문 설치 등 추후에 공사로 인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이 공사내에 포함시키기 앞서 미흡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 정·행계열 과제복원 요구

죽대있는 학제개편으로 학문탐구의 본래적 의미 살려야

지난달 5월 19일(금) 교육부의 정전조 정신청이 마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학제 개편을 과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학교측이 학제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에는 정전조 정 3일 전인 지난 16 일(화) 정·행 계열을 과제제로 복원하는 안을 기획조정처(기조처)에 사회대 학장에게서 제출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조처는 "논의 시간 부족" 교육부 방침과 다름을 이유로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학 학장 김명수 교수는 "계열제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학제에도 사회대를 과제로 옮기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신방과 한 개 학과에 한해서만 과제로 바꾸었다"며 과제와 학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대는 올해부터 신방과와 정·행 계열로 학제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들이 물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정·행계열 1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 선호도 조사에서 참여한 70명의 학생 중에 60명이 정전조 정과 학제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전조 정과 과를 나누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찾기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팀을 의미한다.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 위한 학점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과정에 안에서 학점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문탐구의 본래적 의미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김진주(정행계열 1)장은 말했다.

인기학과 편중의 문제 외에도 계열제는 전공교과와 학제,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학과 학생들의 경쟁심(사회 3)은 "5년 동안 계열제는 학생들에게 해를만 주고 있다. 소속과 과제제로 되돌아와야겠다"고 밝혔다.

96년도 사회대와 함께 계열제로 비전상정대의 경우도 학제와 차원에서 교수, 학생이 함께 학제와 이에 따른 커리큘럼을 논의하는 '학제혁신'을 제 회중에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계열제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과대학 6)로 참조)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기조처 한 직원이 "입국한 학제 개편 논의 없이 중구난방 식이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으며 학교측은 무조건적인 사회 추세를 동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한, 지난 96년 계열제 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해 대학 학교측은 사회대의 학제개편 논의를 성 실행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정모군 (19) 정현도

미안해요. 몰랐어요.

저 책 안보아? 내 자리가 있어요.

도운집

시람기간! 자리가 없다~

두... 등

자... 자리

자... 자리

교수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분야	초빙분야 (총 10명)	인원
사회과학계열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행정학과	행정학과	1

2. 지원자격

3. 제출서류

4. 제출기간

5. 제출처

6. 면접방법

7. 기타 유의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alliance française

2000년 7·8월 학기 개강 (7.31)

REF I, MA II, REF I, IL PAN I II, ESP II, 자유회화, 시사뉴스, 동시통역, 독해, 작문, 현대초급반, 학원초급반, 비디오회화반, DELF, DALF 준비반

문법, 회화 주말반(토) 개강

2000년 알리앙스 주관시험

DELF, 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학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상업 무역 분야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유학심사 및 수속대행

Études en France, Voyages,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에서 직접하세요

2000년 가을·겨울학기 언어연수

skoul-centre ☎755-4972, 5702(중구) nam-soul ☎555-1125, 1126(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yance Française

청문외국어학원

총각 옆 T. 080-738-0515 [영어영어]

젊은언어 푸른미래

한인회화, 미인회화

영어회화, 영문법

TOEIC, TOEFL, TEPS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주말특별강좌

강: 매월초

부설유학센터

www.chungmoon.co.kr

로키움

포르투갈의 해의
팽창과 맛의 형성

포르투갈은 15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해양 영웅들의 활약으로 전세계를 누렸지만, 기원전에는 이베리아의 침략도 많이 경험했다. 따라서 외세의 침략과 해외 팽창의 역사 속에서 식탁은 한층더 풍요로움을 갖게 된 것이다.

기원전 218년에 침입해 수세기 동안 반도를 지배한 로마인들 역시 올리브를 유입시켰다. 오늘날 올리브유를 즐기는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의 음식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향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711년 반도에 침입하여 약 800년을 통치한 아랍인들은 저중세의 북아프리카에서 참, 아몬드, 레몬, 가지, 시금치, 사탕수수, 감귤과 오렌지 등의 각종 작물을 유입시켰다.

이처럼 외세의 침입으로 얻어진 선물도 있었지만 포르투갈 황제들이 미지의 세계에서 돌아와 유럽 사회에 소개한 작종도 다양했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인도 항로 발견 후 귀환시 커피를 가져왔다. 포르투갈인들의 커피를 시작시킨 이 노란 가루는 인도로부터 발견의 또다른 보너스였다. 그러나 무어 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료였다. 이미 미로로 홀로 시대부터 유럽에 유입된 향료는 아랍 상인들과 인도인들에 의해 향료로 운송된 후 다시 이집트의 시리아를 거쳐 베네치아와 제노바에서 유럽 각지로 팔려나갔다. 당시 유럽에 반입된 향료는 주로 후추, 정향, 계피, 육두구, 생강 등이고, 이들 중 후추는 화폐로 이용될만큼 가치가 있었으며 산지 가격 보다 80배가 넘는 교역 물이었다.

따라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향료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고, 결국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 개척으로 향료교역을 독점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이로써 세계 최대 부국으로 부상했고 리스본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이상에서처럼 포르투갈인들은 수많은 식물을 들여와 유럽사회에 전파하며 음식문화에 다채로운 열매를 끼쳤다. 음식문화의 전통은 그것이 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는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해양개척시대에 미지의 세계와 교역의 중요성과 다양해진 포르투갈의 음식문화는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최영수

(포르투갈어과 교수)

대만 천수이볜엔 총통의 등장과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둘러싼 지리한 공방전

1. 천수이볜엔의 등장

천수이볜엔이 제1대 대만총통에 취임하면서 그의 행보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가 천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대만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점 외에 강하게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만약 대만이 통일 회담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와 외국이 대만을 무단 점령할 경우에 한해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전례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숙히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중국의 강경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강경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만독립을 추구해온 민진당 출신의 천수이볜엔은 38.3%의 지지율로 제14대 대만총통에 당선되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이어 대만정부가 대만인들의 대륙으로의 해외반송을 허용한 이후 점차 변화를 겪어온 채 본연의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1995년 6월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불거진 갈등과 긴장관계는 1996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하면서 극에 달하였다. 그 후 1998년 10월 대만정부의 대외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협교류개발위원회(海峽交流發展委員會) 역시 중국정부의 대만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있는 해협교류개발위원회(海峽交流發展委員會)의 위안오현(王煥堯)회장과 상하이(上海)에서 회담을 갖고 나서 해방무드를 맞은 듯하였다. 그러나 1999년 리덩후이가 한후 대륙과의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special state-to-state basis)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소위 ‘양관론(兩關論)’을 제기하면서 양안은 다시 갈등하였고, 올해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이는 더욱 첨예해졌다.

기본적으로 양안관계의 안정과 발전이 서로에게 유익한 측면이 많다는 데는 중국과 대만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만은 80년대 대륙을 경제체 패트너로 얻게 되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으며, 중국 역시 경제발전에 전담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과 경제개방에 필요한 자금을 대만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어 양안관계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중국과 대만은 경제적 상호 의존은 물론이고 안보교류도 점차적 형성에 직접 기지들이 상호 취재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간의 발전은 90년대 말 들어 통일에 대한 정치적 입장차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II. 통일에 대한 대만의 입장

대만은 과거 중국과 빈틈을 두고 대립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대통한 정치체제’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중국과 빈틈을 두고 갈등할 당시 대만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은 첫째,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

며, 둘째,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 국 제원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고 대만이 UN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중국의 대표권을 빼앗긴 후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대만은 90년대 들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였는데 첫째, 반란 평정을 위한 총통탄핵을 종결하고 둘째,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이 대륙에 대해 무력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륙과 중국의 대표권을 두고 경쟁하지 않겠다는 현실적 선언이었다. 대만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대륙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유일 수 있는 없고 대륙과 대만 모두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 통일하지 않았고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분열되어 통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륙이나 대만 모두 국제사회에 각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III.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대만에 비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이란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며 대만은 중국의 일개 성(省)으로 중국에서 본래의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베이징(北京) 당국이 중국의 중앙정부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그들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로부터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중국’원칙을 전제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만이 제기한 ‘양안의 분할과 본질 상해의 인정’, ‘분열국가 통일포럼’, ‘단계적 두 개의 중국’ 등의 주장에 대해 결국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추구하여 엄밀히 중국을 분열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대만의 통일외교에 대한 중국의 요구사항은 대만이 통일합선을 계속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서가 될 발전하였다.

IV. 총통선거를 전후한 양안관계

중국인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제출한 이후 이를 대만이 조속히 수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만은 통일을 기본조항으로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륙의 통일 공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중국은 대만의 중요한 정치적 행사에 맞추어 원외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998년 총통선거 때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한 것만 이번 선거에 대만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계속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는 천수이볜엔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어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공세를 강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통에 천이 당선된 경우 통일이란 독립이란 대만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될 것이고, 만약 천후유(次後유)가 당선된다면 대만의 통일이 새로운 틀과 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어떠한 입장이 당선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국면에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때 예상되는 독립요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향후 교섭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의해 강경 발언과 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통일도 독립도 아닌 한중유지론과 중국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성과만을 향유하겠다는 대만 민중들의 의식도 변화시켜줄 것이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천수이볜엔은 취임 후 중국본토와 대만의 평화(和平), 전면(全面), 마후(馬後) 3개 섬간의 취수 수송을 허용하는 ‘소삼통(小三通)’을 골본 전권적인 ‘삼통’의 허용까지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이상 중국이 요구해온 사항으로 삼통의 허용은 양안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승객과 화물 등에 직접수송을 금지해 왔으며 원칙적으로 홍콩 등 제3의 장소를 경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대만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선박들은 승객과 화물을 대륙으로 직접 이동시켰다. 이 같은 비공식 수송은 중국과 대만국 모두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게다가 대만의 상품금지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될 것으로 대륙의 의미가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 없이 있었다. 이에 대륙의회는 1998년 5월 이 3개 섬의 본토와 직접 교통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차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중국 측이 먼저 상선하고 우호적인 접근을 해줄 때에만 이를 승인하겠다고 거부해왔다. 그런데 천이 회의의 허용을 검토했다는 것은 중대해 협에 외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의 표현이기도 하다.

천은 당선 직후 대륙에 대해 통상증진정책을 제안하고 3월 말 대규모 경제발판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경제개혁 조건으로 대륙과의 관계 복원을 회하였다. 그리고 그는 5월 20일 취임식에서 자신의 입기 내에 대만의 분리독립이나 양국론 그리고 대만의 지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중국을 안심시키는 데 전격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천이 양안관계에 대한 접근이 없는 모호한 태도로 성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고 또 고위급간에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부터 교류가 중단된 해협회의와 해기회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인과 단체의 접촉도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99년 리덩후이의 ‘양국론’제기에 이어 총통선거로 긴장관계에 빠졌던 양안이 관계회복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제까지 양안 교차인 통일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을 점검하였고,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양안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천수이볜엔이 당선 후 보인 행보로 볼 때 대만이 양안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거나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도 현재 그들의 중화민국을 고려할 때 대만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삼부분 무력사용이나 경제적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정치적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으로 교류의 강화가 예상된다.

오규열

(중국어과 강사)

IMF, 이사회 중립 개혁 논의
개도국 차무부담 완화시키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은행 총재들이 지난 31일 자체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위기를 대대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전세계의 비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클라 총재는 IMF의 182개 회원국이 선출하거나 지명된 2명의 이사들이 개혁을 주도하는 추진제가 되어야 한다며 IMF의 역할을 다시 검토하고 개도국의 차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가 IMF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국 의회에는 외부기관들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합참 2020년 군사전략
보고서 작성

미국군은 전략정보전 공격에 맞서 자국군 보충제를 받아내고 외국군사지원에 대한 공격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군사전략보고서를 2020년까지 작성하기로 미국방군은 밝혔다.

합참본부 2001의 보고서는 미국군은 타국과 공동작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코소보 작전에서 드러난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해관계와 기호,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우방에 대한 위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동시에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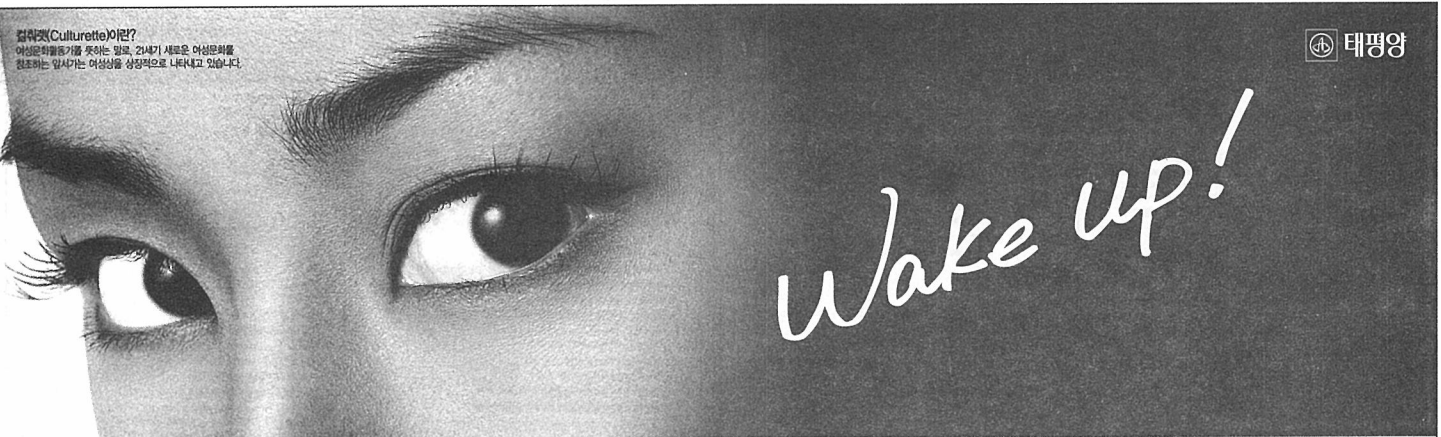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정보작전에 있어서 바다와 지상, 공중과 우주에서 벌어지는 작전만큼 중요한 질 것이라고 훈련된 전문가들이나 특수작전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수임무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탈리아, 어린이 노동자 50만
기업에 어린이 취업금지
윤리경영 도입해야

이탈리아에서 어린이 노동자 50만명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최라 노조연맹인 CGIL의 세르조 오코페리 위원장이 지난 달 20일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북부에서는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의 부족과 문화적 빈곤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르조 오코페리 위원장은 또, 15세까지 취학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어린이 노동이 어린이의 피로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들은 어린이 취업을 금지하는 윤리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깨어나라, 여자

21세기를 리드 해 나갈 진정한 여성은 누구입니까?
21세기 여성을 대표할 큰 목소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제6회 컬위넷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지금 펜을 드십시오. 당신이 21세기 첫 번째 걸키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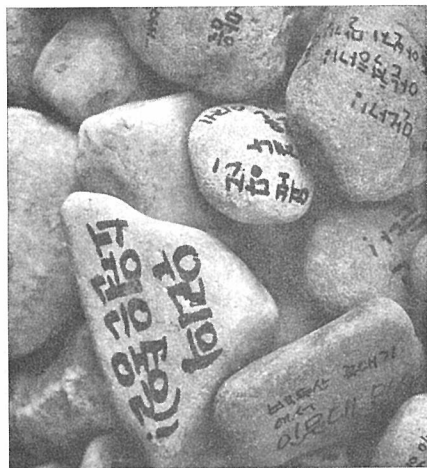
제6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공모기간: 2000년 9월 1일 ~ 10월 31일
3. 공모주제: 「21세기 여성의 역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소재도 가능)」
4. 공모방법: 가. 분량: A4 용지 20매 내외 분량 (워드 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나. 제출서류: 1. 원본 1부 및 사본 2부 2. 재제명서 (2000년 5월 현재)
3. 자기소개서 1부 (여권을 사진 부착)
다.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기재. 각 응모 연구자 2인에게 한함

5. 시 상: 최우수상 1명...상대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3명...상대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 10명...상대 및 상금 100만원
6. 심사자 발표: 2000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출 처: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7가 175-2 성환빌딩 2층
태평양 기획문화재단 사무국 (우편번호는 마감일 소인받까지 지우)
8. 기타사항: 가. 응모지 전인 기한을 중점. 나. 수상자는 당기 입시시 우대
리. 제출된 논문은 24시간 태평양 재능봉사 관
리. 제출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마. 응모된 논문은 일제 반환하지 않음
바. 문의처: 태평양 기획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8/02-709-5631)
9. 심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현성



청년의 꿈, 한껏 품은 우리마당



동일인이 북한 아의 영화제와 작은 세민전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은 첫째날 동일인이 북한 아의 영화제와 작은 세민전을 기획했다. 마인어과, 노아과, 체코어과 등 6개과 12개팀이 참가하여 열린 작은 세민전은 민속음악과 민속춤을 선보였고, 민속음악전도 함께 준비해 여러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외대의 특성을 살리는 좋은 자리였다.

또한 북한과의 자주교류행사로서 평양외대일류과, 평안도 음악인 김지적음악전, 통일 열의 동탑발가를 진행했다. 세민전 준비위원장 손정애(인문·철학 4)군은 "북한 아의 영화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학교육 공문이 필요했으나 학교측이 참가농성으로 인해 학내행정을 해줄지않아 열리지 못해 아쉽다. 이번 대동제기간 동안 작은세민전을 통해 9월달에 있을 세민전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시고령, 미고령 등 인도네시아의 민속음악을 우리 일맛에 맞게 조려해 선보인 마인어과 과회장 김대연(3)군은 "많은 다른 과 친구들과 1학년들에게 문화와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밖의 상설행사

왕산 통일열의 동탑발가·각자의 통일에 대한 열원, 자신의 소원 등을 붙여다 적어 붙는 이색행사가 세민전의 준비로 열렸다. 옛날 마을 입구 서남쪽에 돌을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 대서 작한한 '동일열의 동탑발가'는 평양외대의 자주교류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왕산 열원의 목소리를 동행이 하나하나에서 엿볼 수 있었다. "동일을 기다리나라"라고 돌에 적었다는 김해진(사류과·독일어 1)장은 "제국백척의 대동제기간에 통일에 대해 저분히 생각했을 수 있었다"고 그 소감을 전했다.

주한미군병사 시진전 "너무 끔찍해서 거부감 마저 든다. 이런 말이 안된다"며 정승민(동유럽·노어 2)군은 총아학생회에서 준비한 주한미군 사진전을 보여 한 말이다. 여섯 살 꼬마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주한미군 범죄를 자제하게 알리는 대동제 이 거리전은 출발했다. 총아학생회는 앞으로 학교 인으로의 성폭력 학제정착, 밖으로는 사회여성문제에 대한 실천활동인 가학이나 소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산 통일열의 꽃놀이·4·30의 아픈역사 제주도에서 북방방 가장 가까운 백령도까지 왕산열이 꽃이 되고 말이 되어 갈 수 없는 백두산과 평양외대도 갈 수 있었다. 말을 얹어 놓아 정말로 통해 사랑을 업고 꽃놀이를 하는 진경정도 펼쳐졌다.

대동제를 보내며..

"분위기는 작년보다 훨씬 시끄럽고 활발하여 축제같다"고 전하는 박은연(동학·중국어 2)군은 주점과 음식전만이 유난히 크게 눈에 띄어 아깝다고 전했다. 각과별 주점과 음식전이 활발해서 예전부터 왕산대동제를 "주동제"라고 불렀다는 후문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동제는 그동안의 주동제만의 개념으로부터 많이 바뀌어, 그 전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대동제는 "별대가를 벗어버리고 지향과 도전정신으로 꿈의 나라를 펼쳐자"라는 부제를 들고 노근리와 매원리를 통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빈'이와 영원한 우리의 소원 '동일'이라는 두가지 일관된 흐름으로 다양한 행사를 시도했다. 이에 함대권(인문·사회 4)군은 "아주 집단적이고 적극적인이지는 못했지만 통일 자전개회, 전통문화, 통일꽃놀이 등 비교적 학생들의 자유로운 열린 공간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학생물학과 단대차원의 준비나 또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부족하여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총학생회는 과학생물학과 단대차원, 작은 소모임의 행사를 큰 흐름으로 묶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행사를 담아내는 내용이 아무리 좋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관객은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대동제를 만들어간다는 의식아래 적극적인과 주체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대동제를 모두가 하나의 마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남녀평등 통일 혼례식

남한 한국외대의 남동아와, 북한 평양외대의 북동아의 사랑이 본격화 서남으로 완성에서 남녀평등 통일 혼례식"을 처음으로 드디어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대동제 둘째날 열린 남동아 북동아의 통일 혼례"는 통일과 평등의 의미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신동아들의 여러 순사와 뜻을 알기쉽게 하여 설명에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준비한 총아학생회 회장 석소현(동아·아르카어과 3)은 "혼례식 신랑 신부에게 바라는 점, 특권이 3월 장을 한다는 것이 서구식 웨딩마치의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나눠 주는 모습과는 다른 가부장적 사회 속 평등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수하와 세네가 카를인 권용성군과 이승안이 이 전통문화의 주인공, 아들(자녀)·수와 1호로는 "단지 추억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왕산을 대표해서 통일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풍물패가 성스러운 마당의 액을 붙여 시작한 전통문화는 일반의 축하축무와 총아학생회장과 총아학생회장이 비녀(신랑신부의 소위)를 통일 열원을 나눠 나눠 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제 반세기동안이나 떨어져 살았던 남동아, 북동아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진정 하나가 되었습다. 부부로 우뚝한 한쌍으로 여러분께 통일의 큰길..."

박관에 친 땀을 서로 나누어 먹고, 술도 나누어 마시며, 전통문화의 의미를 곁잡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 박 ~ 호 외치는 과상속의 스트레스를 날린다. 젊다는 이런 것 아니겠어?



▶ 생~생 활치게 구르는 자전거 바퀴속의 희망을 담고 떠날들 뵈는다. 내일은 통일로 세상에서, 밝아오는 세상에서 살기들-- 그리고 학사강고도 없는 세상이길 덧붙여 벌어보자.

제 작

최현정 기자 / 윤홍은 기자



모든 아홉마 저씨 노래자랑

만나보기-북녘에 다녀온 사람들

벽을 허물면, 우리는 통한다



종교인- 박용길 장로

종교관 변하고 있으며
종교 수용하려는
윤리적 일고되어

언론인- '말' 지 신준영 기자

남북합의서 기초해서
화해정신에 입각한
보도해야



최근 수 차례 이북을 방문한 '말' 지 신준영 기자를 만나 이북의 언론과 생활, 또한 이북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접하며 당시 이북의 분위기와 자신의 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왼쪽이 신준영 기자)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이자 지난 95년 김일성 주석 사망 1주기 조문을 다녀온 박용길 장로. 수유리에 위치한 '통일의 집' 환경을 알고 있는 박용길 장로를 만나 이북 사회의 종교와 생활 등 3일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89년 고 문익환목사가 남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하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사망후 남한 정부에서는 북에 조문가려는 조문객들을 막고 비상계엄을 내렸다. 일본 국왕이나 다른 나라에 많은 사절단을 보내면서 유독 같은 동족인 이북에만 조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경이할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95년 김일성 주석 사망 1주기 조문은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녀왔다.

▲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사회는

요즘 이남에서는 괴뢰연풍으로 하루모들이 엄청난 액수의 시비를 들여서 아이들에게 괴뢰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북에는 규모가 크고 넓은 '어린이 궁전'이 있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사예, 그림 등을 가르친다.

이남에서는 이북의 경제가 어려워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가서 보기에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었다. 세금도 없고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볼때 생활이 그렇게 힘겹지만은 않은 것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묘향산을 둘러보다 '북해 천선 정관'이라는 곳을 발견해 되었는데 그 곳에는 세계각국에서 북으로 보내온 공예품, 귀금속, 꽃 등 많은 선물들이 11만점정도 전시되어 있었다. 작은 지갑 하나조차 쓰지 않고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웠다.

또한 공예도 없고, 대중음악도 그대로 마실 정도로 깨끗한 물과 천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 종교인(기독교)으로써 본 북한의 종교
한때 평양은 '한국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했고 기타 종교들도 성행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종교를 배척하기 시작한 종교는 어떤이라는 말이 나돌고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금지시켜 종교인들이 모두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점차 이북의 종교관이 변하고 있으며 종교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89년 문익환 목사가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남북회담 때 김일성 주석은 문목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함께 김일성 대학에서는 교수들에게 교회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많은 목사들이 이북에서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평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을 열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해 회담이 결연된 것이 무척 아쉬웠다. 얼마밖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성과를 남기 기대하는 것보다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또한 이를 계기로 남북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며 통일이 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다만 회담이 잘못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어있어 현관 걱정된다.

▲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요즘 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통일문제와 같이 심각한 큰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종선때는 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을 보고 스스로 찾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통일 문제가 마한가지다. 지금은 타의에 의해 분단되어 있지만 통일은 반드시 해아할 과업이라 생각하고 배웠던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 언론인으로서 생각하는 이북의 언론
이남의 사회와 이북의 사회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다르다. 이남의 언론이 권력을 옹호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북은 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아직도 이북의 언론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북의 언론이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북 언론의 한가지 특징은 감도될 같은 방법 행위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담당하는 것은 각 회사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토요총화대회' 같은 자리로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 당시 이북의 분위기

지난 10일 안원리로부터 저녁 10시에 특별긴급 보도가 전국으로 방송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아마도 남북이 탈레반 시정을 한 건 처음 아니었다 한다. 모두가 방송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숨죽이며 시청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라서 나 너무 뜻밖이었다. 주민들은 '오늘 축제를 돌아야 되겠다'며 매우 들뜬 분위기로 즐거워했다. 오히려 놀라움을 보여 기쁘지 않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방송을 보고 거리를 나가 시민들을 붙잡고 화제를 했는데 시민들 모두 남측노선을 가리지 않고 들뜬 분위기였고 '이제야 진짜 통일이 되는구나'라며 즐거워했다.

▲ 남북 합의에 드는 이북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 갈 때마다 이북은 변하는 것 같다. 경제문제나 식량문제 등 등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 언뜻 보기엔 생각과 말이 같아 모든 것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점이 많았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아무래도 분단이후 서로 다른 체제에서 50년 이 넘게 살아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북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와 공부도 필요하다. 하지만 50년라는 긴 시간의 정서는요한의 단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대인이 외대인에게

헝가리어와 '민들레'

정영오

(동유럽·헝가리어 2)

오늘날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대로 하고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군사정권에 항거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듯,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정신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담당해야 할 임무가 있을 것이다. 그 임무를 어느 한구상원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사회는 마치 모래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출렁임에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민들레학회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생겨난 참산 최고의 사회과학회이다. 우리 민들레 학회는 군사정권이 한창이던 89년에 '민중 속으로'라는 학회로 첫 발을 내 뒀다. 이후 이 이름으로 92년까지 이어지다가 93년도에 학회 이름을 '민들레 학회'로 개칭하게 된다.

민들레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밭에도 밭에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민초를 뜻하기 때문이다. 학회는 보통 10명 안팎이다. 그리고 매주 모임을 가지며 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룬다. 초창기에는 군사정권의 모순을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학회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민주화가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던 94년부터는 사회과학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민들레 학회는 사회학을 함께 하게 된다. 이에 우리 민들레 학회는 어떤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민들레학회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있다. 그 예로 지금은 연예인들의 팬클럽부터 시작해서 역사기행, 여행,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 몇몇동인 민들레 학회가 팸플리를 유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다시 그 민들레 학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민들레학회가 가지고 있는 선,후배와 그리고 회원들간의 끈끈한 정 그리고 믿음이 아니겠나 싶다.

민들레처럼 우리학회의 민들레 또한 아무리 밟아도 꺾이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왕년의 파수꾼이 되리라 확신한다.



청자속에 새겨진 사랑이야기-청신별곡

서울 예술단의 고대문학 원류 찾기 그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와 춤과 음악이 있는 무대. 청신별곡은 고려시대 청자를 빚던 한 도공의 슬픈 사랑이야기. 임금의 공음으로 폐하가 되어버린 명에서 고려청자를 빚던 한 도공의 예술혼과 몸고공에게 빼앗긴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한국무용으로 엮었다.

고려의 아름다운 청신과 애절한 노래, 청신별곡의 관능적인 해석과 춤. 그리고 남사당놀이, 그림자극, 꼭두각시, 몽고의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매: 8월(목)~11월(일)
목(금)지 30분, 토(일)지 30분, 일(30)
장소: 예술의 전당 토크극장
입장료: V석 3000원, S석 2500원, A석 1500원
문의 및 예매: 529-0066

대학생 수익률 1000%를 잡아라!

주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주식을 알면 금웅이 보인다!

「E*TRADE 증권 전국 대학생 주식 투자대회」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모두모두 여기 붙어라!

E*TRADE 증권 전국 대학생 주식 투자대회

예선대회 (모의 증권투자 수익률 게임)

- 참가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해외 유학생 포함)
- 참가방법: 2000년 6월 15일(월) ~ 6월 22일(일) 선착순 5,000명
- 신청기간: 2000년 6월 15일(월) ~ 6월 22일(일) 선착순 5,000명
- 신청방법: www.etrade.co.kr 또는 www.kosdoctor.co.kr에서 참가 접수
- 대회기간: 2000년 6월 23일(월) ~ 7월 21일(일)
- 상 금: 우수를 상위 30명 100만원(본선대회 투자자금) 지급
코스닥터 애널리스트상: 1등(300만원) 2등(200만원) 3등(100만원, 2등)

본선대회 (실전 증권투자 수익률 게임)

- 참가자격: 예선대회 상위 300명
- 대회기간: 2000년 7월 31일(월) ~ 9월 8일(일)
- 상 금: 1등(1명) ~ 3등(3명) 각각 500만원
2등(1명) ~ 3등(3명) 각각 200만원
3등(1명) ~ 3등(3명) 각각 100만원
코스닥터 애널리스트상: 1등 3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etrade.co.kr에서 참고하세요
- 문의처: event@etrade.co.kr

E*TRADE KOREA

온라인전문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

본사: Kosdoctor 코닥터(www.kosdoctor.co.kr) 주주: 한국투자증권

www.etrade.co.kr

한국전쟁, 통일만이 종전의 길

1부 - "미국이 없었으면 전쟁도 없었을 것" 2부 - "레드 콤플렉스, 반공으로 억눌린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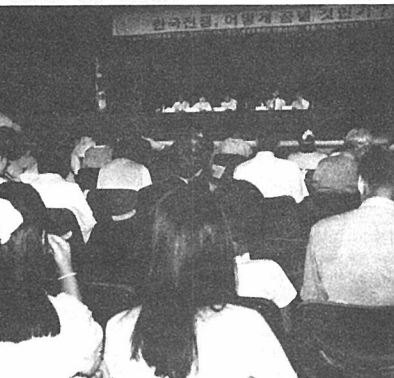
1부 박태균(서울대 국사학과) 강사는 '남한의 전후 복구과정'에 대해 고찰하며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부족에 시달리던 38선 이남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해방이후 50년 분단에서 경제 안정을 찾아온 한국경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어진 미국의 무상원조는 이후 한국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진 군사정권 시기 경제발전기에 대해 그는 "군사정부의 등장과 폐쇄된 행정부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견해를 밝히며 그러한 이유로 군사독재가 인정되고 미국의 경제적인 간섭이 정당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발전 계획의 결과로서 농업의 위축, 외지의 급속한 확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발전, 정부와 결합한 재벌기업의 성장 등을 아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이 남긴 북한의 인적, 물적 피해는 남한의 피해를 훨씬 능가했다"고 견해를 밝힌 이영환(고려대 경제학과) 강사는 "한국전쟁과 북한의 전후 경제복구 및 건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교육성장을 절대적으로 추구했으며 이를 실현했던 소련의 중공업우선주의 수공업 농업협동화를 추진했고 인조단열에 따른 축적위기에 직면하면서 투자재원을 내부에서 구하는 자력경쟁의 축적체제로 전환이 모색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중공업우선의 고속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노동력 부족, 투입물의 수요증대, 특산품의 방목현상을 들었고 그 결과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비교하며 한 국전쟁의 성격에 대해 발 제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 일 발발한 것이 아니라 1948년 부터 전쟁이 시작 되었다"고 밝 히고 그 이유 로 4·3 제주 항쟁과 같은 전쟁정의 많 은 학살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그는 중 요한 점으로 "미국은 2 차대전 이후 발전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그들의 역사경로를 외면하고 근거없는 냉전논리로 침략적 개입을 스스로 완 벽히 정당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은 분단이 되었고 베트남은 30년 이상 역사기 지런,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과 외세로 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며 두 전쟁이 긍정적인 측면을 그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이 없었다면 두 나라에서의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도 베트남 전 쟁에서는 완전한 패배를 한국전쟁에서는 좌절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제1회 학술토론회

과 패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리했다.

2부 김귀옥(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 구원은 '한국전쟁과 레드 콤플렉스, 학문의 자유'라는 주제로 학계에 있어서의 레드 콤플렉스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국가나 지배계급은 대략 네가지 구성 요소로서 개인들 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려한다"고 밝히고 그 네가지 구성요소로 물리적으로요, 제 도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형제적으로요를 들었 다. 이 네가지 요소들은 분리되다가 결합되어

마포의 주문을 돌아야 한다. 그이러한 우리는 비로소 21세기를 선이 악을 이기고 평화롭고 평등한 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이성욱 (성공회대) 강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의 대중문화가 미국문화에 잠식된 부분과 재도 화된 점들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중문화는 대 중의 표현적인 욕구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것이다"라고 대중문화에 대해 정의했다. 첫 번째로 그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 국이라는 이미지의 강렬함에 비해 미국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 러나 한국전쟁을 통해 방대한 물량의 미국문화 가 한국에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대중음악을 즐겨 들던 사람이려면 90년대 대중음악에서 무언가 빠진 것을 알게 된다"며 미국문화로 인한 자의적정성의 부재와 본단으로 인한 '고향'이라는 단어의 부재를 이 어기었다. 그러한 미문화화는 소위 미8군주대 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 노릇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 대부분의 가수들이 미국의 가수 들을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미친 또 다른 영향으로 이성욱 강사는 반공이데올로기와 검열문화, 그리고 인한 상상력과 표현의 제한을 들 었다. 이에 대해 그는 "거세에 대한 공포 때문 에 검열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많 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검열기계에 대항자로 자처하고 나서는 일이며, 이 역시 모두가 검열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회의 효과라고 개탄했 다.

최호남 기자
hobong1083@hanmail.net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제1회 학술토론회

중합토론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중합토론은 '한국전쟁은 과연 끝났는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중합토론에 앞서 손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한국전쟁의 의 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 었으면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영환 강사는 '기술력의 부족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붕괴 때문에 기술력의 부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객석 질문에 "노동력의 부족과 기술력의 부족,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 지 않은 면 때문에 경제성장이 늦어진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기술력의 부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붕괴 부분도 무시 할 수 없는 부 분이다"라며 객석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응 의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혜 구(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원로부터가 아닌 민중들이 가늠이 된

이러로 부터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각 도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임영형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전쟁을 끝 내는 길은 역사를 제대로 평가한 후 통일을 해 야한다"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욱 강사는 "많은 나라 들이 '세계화'라는 글에 안에서 미국문화에 잠 식되고 있다"며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김귀옥 연 구원은 "전쟁시기 여성, 특히 성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다음 연구 주제 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한국전쟁, 어떻게 끝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정구 교수와 임영형 교수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반의세적인 통일 이아랄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였 다.

학술 토론회

서울, 동원 사회과학분과 강연회 열어

오는 5일(금) 동아리연합회 사회과학분과에서는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와 그 대 응 방'이라는 주제로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3308 강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 한다.

이번 강연회의 강연자는 사회진보연대 불안전 노동조합의 박상현씨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사회과 학분과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어떠한 원 인으로 노동의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는 지, 불안정 노동자가 어떻게 불합리한 지, 그 상 황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강연회 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2000/2001년 졸업예정 예비 선생님들께 채널아이 전화접속 1년 무료 제공!!"

■ 무료 가입 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가입 방법 및 문의처: 02-6446-9900, 080-50-01434

PC통신을 돈내고 쓴다구?



아직도 모르니? 채널아이!!

ADSL, LAN, 전용선, PC방, 케이블망...

지금 초고속으로 접속하면 채널아이가 평생 무료!!

무엇을 제공하나요? E-mail, 홈페이지 제작, 자료실, 게시판, 동호회, 대외성, 이메일링, 채널아이, 인터넷 검색, 실시간 뉴스/로딩중, 박진호 생방송, 연영미 미용실, 방송 참여, 바둑, 장기, 오락, 사주 운세, 영화자료, 24시간 음악방송, 인터넷방송국+CAST 등 (유료정보 이용요금 별도)

Channel i

www.channeli.net

미군의 폭격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경찰의 연행까지...

한국 각지에서 매하리 쿠니 폭격전의 문제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매하리 미군군 폭격연습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을 지난 29일(금) 연행하고 이에 항의의 시위를 벌이던 경기도민청총합청화합연합회(경민총연) 소속 학생 40여명과 청년단체 회원 등 약 10여명에까지 전만규 위원장을 연행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미 공군의 폭탄 부하에 대해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격심, 폭력 현란을 일삼는 것은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거 투쟁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또한 연행된 학생 중에는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최고문(노어 4·부흥학원생회장), 박기남(독일어 3), 황중재(언어 3, 후학), 김민영(화학 3, 후학), 정현태(사학 4) 등 5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전 위원장의 연행과 항의 방면에 주한미군 측은 쿠니 사건장에서의 폭격연습을 또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일(목)에는 '불법행위 연행정합정정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의 공동대표 문정진 신부는 "총련의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 5월 8일 진행예정인 폭격은 그 전에 있었던 마을 한 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목숨에 맞닥뜨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 이상 폭격을 하게 봐 줄 순 없다"며 매하리 쿠니 폭격의 폐쇄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매하리 주민 전성진(38)씨는 "이 곳의 문제는 학과 이들과의 문제가 아니다. 쿠니 사건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으려하고 있다"며 매하리 쿠니 사건장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시위에 참가한 양민호(서울대 2)군은 "시위를 하는데 미군 기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미군이 아닌 한국경찰이라는 사실에 화가났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옹호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또 한진아(세종대 1)원은 "매하리 문제를 알리는데 들어와서 이곳에서 와서 보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다. 이러한 정당한 움직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으면 한다"며 이날 시위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하리 미군군 폭격연습 주민반대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오는 6월(일) 가계 시민 사회단체와 청년단체, 학생들과 함께 쿠니 사건장에 대한 대규모 항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의시위 도중 연행된 용인배움터 최고문(독문어 4)·노어 4(장 안민)씨는 "항의시위를 전개하게 된 이유는 지난 29일(금) 매하리 전만규 대책위원장이 화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성 경찰서에서 항의방문을 가게 되었다. 우리학교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미 도착한 나 자신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여자들은 남아서 '폭력경찰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자 모두 다 연행됐다. 폭력경찰서, 안성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로 나뉘어져 조사를 쓰고 다음부터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서를 거부하며 투쟁을 벌였다. 11시간 정도 경찰서에 갇혀있다가 혼방차리로 다음날인 30(토) 오후 5시경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금 매하리 쿠니 사건장으로 인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몇년간 매하리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한 열을 한합할조사사건이 조사할 하고 피해는 사적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는 태도는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모르는 처사 같다. 또한 대책위원장을 잡아가는 등의 정부 태도의 부당성을 알려낸 것이 이번 투쟁의 의의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6월에 있을 매하리 투쟁에 참여할 것이요, 22일부터 24일동안 열리는 매하리 반전항의를 능동참여할 중의 하나로 참여할 예정이다.



명동성당 농성단 팀장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나왔습니다”

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씨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최소한 인민학살에 대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농성을 진행할 것입니다”라며 농성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천막은 ‘국가보안법 관련 정지수배해제 농성단’이다. 이들은 4월이래 계속된 농성으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배라는 신분 때문에 명동성당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삼정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국가보안법 관련 정지수배해제,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그리고 8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탄압 중지와의 이적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의 요구안을 말하는 유영진(7년 5기 한총련 외장 근한명) 및 폭포대 총학생회장(장)은 그들은 이러한 요구의 내용을 담는 농성 중에 사발상을 하기도 했다. “농성단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3년 만에 석방에 채 이들과의 얼굴을 드러내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음기 위해서 수배생활을 할 때보다 더 편하게 되어 마치 웃음을 지었다. “무기한으로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요. 남



북정세하임이 진행되면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시문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죠”라며 유군은 앞으로의 농성 계획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명동성당 측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해 농성을 하고 있는 ‘인민학살 반대, 주한미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법민권·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한총련 농성단’은 명동성당 입구의 맨 뒷쪽을 자리잡고 있다. “성당측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농성으로 진행하는 거죠”라며 천막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농성단장 최현희(서울사부지구총학생회장)는 투쟁분부장, 한총련 총학생회장(장)은 “시민들의 반향이 너무 좋아요.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사진전도 진행하는데 시민분들이 사진전에 끝난 시간 후에도 계속 사진을 보시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지고요”라고 해오며 최군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 곳에서는 ‘한국 청년 연석회의’ 소속 청년들 또한 농성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지

는 못해요. 몇몇이 농성을 하고 사람들은 거의 저녁 선전전에 같이하고 있죠”라며 생활을 이야기하는 송현석(30)씨는 지난 28일(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법민권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 미군에 의한 인민학살 사과배상과 전쟁 재판소 제소, 매하리 폭격정 폐쇄와 폭격중단, 미군들의 근접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내용으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굳이 농성을 계속하게된 이유에 대해 묻자 송씨는 “대중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저의 활동의 대부분, 하루에 9시간 정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선전전에 쓰이는 제이있는 구호들을 선보였다. 그들의 농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성단들 직접 지지 방문하는 사람들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의 활동에 대해 이명기(41)씨는 “미군의 문제는 이거 대체로 무서워서 아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싶어요”라며 농성단들을 격려했다.

여러개의 지방, 3개의 천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전시되어있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인민학살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명동 성당 입구의 모습이다. 지금 명동성당에서는 천막은 3개지만 5개의 단체가 각각의 요구사항을 걸고 쉼터는 4일부터 길에는 20일경 40여명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첫 천막의 김종일(43)씨는 “미군의 인민학살

전만규·사회배상과 불법행위 연행정합정정의 전면 개정, 매하리 쿠니 사건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20일째(5일 현재) 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청총합청화합연합회(화합연), 불법행위 연행정합정정 SOFA개정 국민행동, 매하리 미군군 폭격연습 주민반대 대책위원회, 미군 익산민족폭격 전상규 명 시민대책위원회, 반미구국노화연대전상규 등의 단체들로 이루어진 농성단원들은 지난 16일(화)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

비둘기철판

매- 6월 9일(금) 늦은 5시 30분
곳 학생회관 점점

영아와 학회 "ABC"의 학술제 있어요.
매- 6월 9일(금) 늦은 5시
곳 아문관 200호

독일어와 중강총회 합니다. 방학되기 전에 우리 얼굴 꼭 봅시다.
매- 6월 8일(목) 늦은 5시 30분
곳 영수당

중국어와 중강총회
매- 6월 8일(목) 늦은 6시
곳 교양관 401호

독일어와 중강총회
매- 6월 9일(금) 늦은 6시
곳 후북관 소극장

중국어와 중강총회
매- 6월 9일(금) 늦은 6시
곳 후북관 소극장

이문 별

0 일입니다

·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첫날 저희 외대불교학생회에서 사단법인 '성령나눔선교회'의 공동으로 전국민 1인 1장기 기증 캠페인 및 한총련 모교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과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장기기증 22명, 한총련 44장, 화정문학회에 대해 금정학이라는 서명운동에 370여 학우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주신 과대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대불교학생회)

· 제 2회 타이거 폴스 코피아업 대학원생 축구선수권 대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차전- 6월 11일 11월 0:0 서강대 (승부차기 3:1)
2차전- 5월 13일 11월 2:0 강원대
3차전- 5월 20일 11월 1:1 숭실대(승부차기 4:2)

4차전- 5월 28일 11월 1:0 재일교과학생팀
결승전은 인하대와 6월(화) 늦은 4시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축구부(22관동하) 961-4614

(외대 축구부)

· 한국영화상영회
한국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나, 문화의 총체적인 표현인 영화를 이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이자 언어로 된 영화는 특별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의 영화를 요점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문의: 017-740-1997(양숙희)

(한국영화 상영회)

· 창주외고, 우리 한민 모이조!
매- 6월 5일(수) 늦은 5시 30분
곳- 카스타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동문회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회비는 민민

(창주외고 동문회)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지점으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전권스님, 범민족통일대추전 주도 정역선고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전권스님이 29일(금) 열린 원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전권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년민족통일대추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추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무산정남 연행 최상원 고문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농민통일대추제' 복에 제언

전국농민회총연맹(전총연)은 2000년 6월 29일(금), 남북 농민들의 자주교류사업을 통해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실현할 당기기 위해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측에 '남북농민통일대추제'를 제안하였다. 지난 2월 29일, 전총연 8기 1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남북의 농민에게서 우리만 살았다'는 식의 잘못된 농업이 아니라 남북농민들의 자주적인 교류로 통일농업을 실현하자'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씨를, 줄대단기 등 각종 민중경기 포함하는 '남북농민통일대추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전총연은 '남북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축제 한마당을 통해 한 끼를, 한 거머를 확인하고 서로간 이해를 높이고 통일열기를 확인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며 제언의 취지를 밝혔다. 전총연은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답변이 오는 즉시 제3국에서의 실무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지역 사회단체, 불법행위 관련 전남도청 항의방문

'5.18민중항쟁청년동지회'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추진위원회 등 광주지역 6개 단체는 5월 30일(화) 카톨릭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18 주간에 일어난 회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와 말잡장사가 아직도 존재하는 시대적 정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건 책임자의 즉위 해제, 재발방지 약속,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방방을 통해청년회에서도 한 걸음의 인권향상에 앞장 서자"고도 다짐했다.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이후 전남도청을 방문, 청정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청의 안이한 태도로 청정과의 면담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회원의 불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년동지회측은 경찰 관계자들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인권헌위 위에 재조하는 등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려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영화판·'일곱째 봉인' Det sjunde inseglet' (1957, 스웨덴)

절대 존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한 죽음과의 마지막 승부

제작 및 배급: 스벤스크 영화사
시나리오: 잉마르 베리만
촬영: 군나르 피셔
감독: 잉마르 베리만
제작: 알란 예켈룬드
음악: 에릭 누드그렌
미술: P. A. 룬드그렌
편집: 렌나트 발렌
길이: 96분
주연: 막스 폰 쉬도(블로크), 군나르 비에른스트룀(엔스), 닐스 포레(요프), 비비 안데손(미아), 벵트 에케트(죽음)

1957년 스웨덴의 영화 감독 잉마르 베리만 Ingmar Bergman(1918~)은 케스트가 참관하던 유럽의 중세를 무대로 한 영화 '일곱째 봉인'을 칸 영화제에 선보인다.

영화 속에서 케스트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신은 침묵을 고수할 뿐이었으며, 절망적 상황에서 인간은 절대 존재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에 휩쳐 버릴 수 없었다. 스크린 속에서의 신학적 고뇌가 시작될 것이며, 베리만은 영화사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일곱째 봉인』은 그 이전에는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였고, 아무도 던지지 않은 화두였다.

새벽의 어두운 하늘로부터 빛이 나오는 오프닝으로 이 영화는 시작된다.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 안토니우스 블로크는 흑사병이 퍼져 죽음의 땅이 되어 있는 고향 스웨덴의 바닷가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혼란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방문을 받는다. 자신을 '죽음'이라고 소개한 그에게 블로크는 목숨을 건 채스 내기를 제안하고, 죽음은 그에게 동의한다.

만일 죽음이 이기면 그는 떠나나니, 기사가 이긴다면 죽음은 물러가야 한다. 승산 없는 내기에서 정발로 블로크가 원하는 것은 체스가 진행되며 죽음이 연장되는 시간 동안 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삶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하여 블로크는 성당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지만 그 고해를 듣는 이는 구원을 해 줄 신도 사제도 아닌 죽음이다.

블로크는 '미녀'로 심판된 소녀에게 약이라도 만나게 해준다면 신이 계신지 물었다. 그 때였다. 소녀의 옆을 지키는 이 역시 죽음이다. 성당에서 마련한 집회에 참석한 블로크는, 고향의 행렬을 보며 쫓겨온 흑사병은 신이 내린 벌이라며 더욱 사람들을 겁주는 사제를 본다. 그에게서도 신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 블로크는 오히려 관대 요프와 그의 부인 미아, 아들 미카엘을 보며 잠시나마 평화를 느낀다.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동행할 자처한 기사는 시종 엔스, 그를 따라나선 여인과 일행을 이루어 길을 떠난다. 일행에 대장장이 홀로크와 그의 아내 리사가 합류한다. 그러나 밤에 블로크가 죽음과 체스를

두는 광경을 본 관대 부부는 서둘러 떠나고, 남은 일행들은 비를 피해 들어간 성에서 블로크의 아내 카린을 만난다. 그들 모두에게 죽음의 기도가 올리고, 블로크는 마지막으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지만 죽음에게 정복당한다.

하루는 오프닝과 대조적으로 어두운 빛에 휩싸이며 그들은 죽음에게 이끌려 사라진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채 절대 존재를 부르지만, 신의 침묵 앞에서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간 블로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류를 대표한다. 반면 조연으로 등장한 관대 부부만이 살아남는 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에 매달리는 대신, 단순한 감정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영화에서 기사가 한 한편의 평화와 충요를 느낀 순간은 그들과 만나서 신선한 활기를 대접받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베리만은 신의 존재에 의문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충분한 것이 삶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하고 있는 신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고뇌가 현악적인 지식인들만의 것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베리만의 중세는 세기말적 공포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세상은 죽어 가고 있으며 죽음은 삶과 결과가 예정된 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은 부재하는 듯 보인다.

『일곱째 봉인』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의 삶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질문하고, 회의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기도하지만, 아무도 신의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따라 사라진다.

베리만이 그의 고통스러운 신학적 회의와 신의 침묵과 인간의 절망으로 완결 지은 『일곱째 봉인』은 영화 속에서 형이상학적, 신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소화한 최초의 작품이었다.

이유진

(서양·스칸디나비아어 3. 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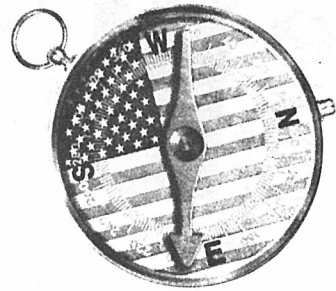


사

“대통령이 와서 살아보라” 사각 혼란제국을 앞둔 주황색 깃발을 찾아버린 전안규 매항리 대책위원장은, 벌어지는 폭격에 죽음을 각오하고 깃발을 찾을 수 있는 밤은 13년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며 먹물함을 쓴 몸으로 느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전쟁기술을 높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미국을 보고 나가려고 한 것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돌아갈라는 대책위원들을 전전연행해야만 했을까?

정효정 hyodong@ham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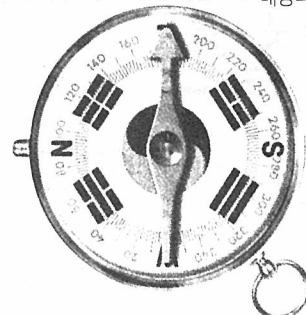
매항리 피해가 미군과 무관하다구요?



진실을 향하십시오!

매항리 항의 집회 및 농성 투쟁

일시: 6월 6일(화)
장소: 매항리



- 인명피해 - 매항리 폭격훈련으로 인해 신체부위가 떨리고, 승조경련현상이 나타난다. 불면증과 피로, 정신적 초조함이 든다.
- 시설피해 - 폭격훈련으로 인해 유리창 파손 137건, 건물벽체 및 담장균열 2907건, 기타 360건 등 총 558가구 3404건의 피해를 입었다.
- 가축피해 - 4개 마을 15가구의 42마리의 젖소가 유산했다.

사·제8회 공초문예상 수상작

나무토막

이작 (본명 김형률·한국어교육과 교수)

여름날 해를 치고 놀 때
즐거웠다
물을 먹으며 공을 던지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대개 우리들은 노는 일에 몰두했다.

어깨 위로 조금씩 어둠이 내려왔을 때
바위처럼 살리라
구름처럼 살리라
그러면서 산 속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 여름날 해변가는 그냥 있는데
또 다른 물결이
앞에 서서
길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는
나무토막처럼 물 위에
떠 있을 것이다.

정말?